



2007년 정해년 새해를 희망으로 채워 나아갑시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2007년 정해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돼지해를 맞아 풍성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985년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설립되어 국내 최고 권위의 건설안전전문기관으로 성장한 우리협회는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재해예방 활동 및 관련기술 개발지도 보급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실적 향상을 꾸준히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회원 여러분과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내 건설안전 분야가 처한 실정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멀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건설안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일정금액 이상 건설현장에 건설안전기술사 상주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부 연구용역 자문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발주자를 활용한 건설업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의 적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에는 사단법인 한국방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협회는 한국방재협회와 더불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안전 전문기관으로 입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임·직원 여러분!

2007년 올해도 건설수주는 4% 가량 감소하면서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7년 건설·부동산경기 전망’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정부의 안정기조 정책이 유지되는데다 주택자금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고, 토지시장도 거래 위축으로 인해 1% 내외로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건설수주 또한, 재개발·재건축 수주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4.0% 감소된 95조7000억원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주택 등 주거용 건축부문은 연간 7.4% 줄어든 42조6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설투자도 신도시 건설과 행정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 착공에도 불구하고 0.5% 증가에 그쳐 4년 연속 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자칫 건설안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근로자의 건강임을 잊지 말고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안전의 기본을 늘 생각하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회원 및 임·직원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1월 1일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회장 한 경 보